

소홀히 할수 없는 착오적인 론리

어떤 사람들은 “신불(神佛)”이란 말만 해도 과학에 어긋나는 미신이라고 반박한다. 이렇게 과학과 신불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있지만 뉴턴을 망라한 허다한 과학거장들은 모두 신을 믿었고 당대 서방사회에서 신을 믿는것은 보편현상으로서 신을 믿는 과학일군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1901 년에 노벨상이 설립된후, 미국에서 이 노벨상을 받은 286 명 과학자들중에서 92%가 신을 믿고 있다.

현대사람들이 늘 말하는 과학은 서방실증과학을 가리킨다. 사실 과학이 신의 존재를 부정한적이 전혀 없다. 과학은 인류가 실증의 방법으로 자연적인 활동을 탐색하고 있는바 그 기본특점은

과학실험증실을 하지 않은 모든것을 의심하지만 신이 있는가 없는가하는 이 문제상에서 근본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과학과 유신론의 구별은 다만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를뿐이다. 레하면 경락은 만질수 없고 서의가 해부해도 볼수 없지만 몇천년전의 중국고대사람들은 수련을 통하여 정확하게 경락을 알고 있었다. 현대사람들은 과학수단으로 그것의 진실한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들에 비해 몇천년 뒤떨어지고 있다. 과학으로 신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착오적인 론리이다.



부패되지 않는 인체

2010 년 11 월 30 일, 복건장주룽해시 9 호진림전암사에서 궁전을 수리하려고 땅을 파헤칠때 한 항아리에 매장된 완벽한 육신을 발견했다. 이 유체는 림전암사의 한 녀거사의 것이였는데 이름은 진주이고 법호는 주고였다. 그녀는 1906 년에 태어나 1978 년에 원적하여 항아리에 안장되였던 것이였다.



수련자의 “육신이 부패 되지 않는” 현상은 매체에서 종종 보도되어 현재는 비밀이 아니다. 선종 6 조

혜능의 육신은 천여년 지났지만 지금도 광동 남화사에 단정히 앉아있다. 9 화산에만 하더라도 14 명의 부패되지 않는 진짜 신체가 있다. (윗사진)

1952 년, 중국서장지구 최고군정장관이며 해방군 18 군 군장 장국화가 친히 신강의 활불(活佛)이 열반할때 “홍화(虹化)”하는 기적을 보았다. 그날 아침, 대경당가운데 단정히 앉아있던 활불은 다른 중들이 다 온후 온몸이 위로 두번이나 떴다

가 제자리에 떨어졌다. 세번째로 몸이 뜰때 큰 우뢰가 울듯한 굉장히 큰 소리가 나더니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붉은 구름이 날아가는것만 보일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육신이 썩지 않고 “홍화” 하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 고승과 민간수련인들은 모두 품성이 선량하고 남을 돕기를 즐기며 일생동안 덕을 닦은 공동한 특점이 있었다. 현대과학은 생명현상에는 여러가지 존재형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련인들의 육체가 민간에서 썩지 않는 그들의 진정한 생명형식은 수련을 거쳐 승화와 영존(永存)에 도달된 것이다.

금상을 탄 촬영작품 “희망의 길”

지난 12 월 4 일, 제 3 차전세계중국인촬영작품콩클 표창대회를 열었다. 미국국경일 시



위행진에서 사람들이 파룬궁을 환영하는 것을 반영한 미국촬영사 그랜 • 칸의 작품 “희망의 길”이 금상을 탔다.

세계인권일에 홍콩각계에서 파룬궁을 성원



2010 년, 세계인권일을 즈음하여 홍콩파룬궁학원들은 지난 12 월 2 일에 《인권을 보호하고 박해를 반대하자.》는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하여 사회각계의 큰 지지를 받았다.

홍콩지지련합회 부주석 채요창은 회장에 와서 《어떠한

극단적인 전원이거나 어떠한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인류가 공유한 가치를 견지하고 인권자유의 이러한 세계적인 가치를 위해 계속 분투하기를 바란다.》고 표시했다.



홍콩민주당 주석 하준인은 《우리는 오늘날 독재로 날뛰는 중공정권에 대해 절대 머리를 숙일 수 없고 절대 굴복할 수 없으며 자유를 말살하는 폭행에 대해 부동한 종교신앙과 부동한 종족인사들을 박해하는 모든 폭행에 대해 견결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집회가 끝난후, 시위행진대오는 수많은 현지 주민과 중외유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 대륙인사는 사진을 찍고나서 《난 처음 보았어요. 집으로 돌아간후 친척과 친구들에게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어 료해하도록 하겠어요.》라고 말했다.

중공이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

강택민은 개인의지와 질투, 극단적인 권리에 사로잡혀 1999 년 7 월 20 일, 수천수만의 파룬궁학원에 대해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차단하며 육체상에서 소멸한다.》, 《때려죽여도 그만이고 맞아죽으면 자살로 치고 그 원인을 밝히지 않고 직접 화장》하는 학살정책을 실시했다.

강택민집단은 중국대륙의 파룬궁학원에 대해 극히 잔인한바 40 여종의 혹형을 사용했다. 레하면 런일 자지 못하게 하기, 고압전기몽둥이로 오래동안 온몸을 지지기, 몽둥이와 채찍으로 마구 때리기, 짚게로 손톱을 빼기, 강제로 고추물, 소금물, 똥물을 주입하기,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주사놓기 등등이다.

명혜망의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1999 년 7 월 20 일부터 10 여년동안 파룬궁학원 3 천 4 백 16 명이 박해로 사망되고 (중공의 엄밀한 소식봉쇄로 말미암아 실제상 사망인수는 훨씬 더 많음.) 6 천명이 불법판결을 받았으며 10 만명이 불법로 동개조를 받았고 수천명이 정신병원에 압송되어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주사를 맞았다. 그외 억만 파룬궁학원의 가족과 친척, 친구, 동료들이 련루되어 박해를 받았다.

중공이 파룬궁학원에 대한 혹형

